

보도시점 2024. 4. 5.(금) 10:00 (2024. 4. 5.(금) 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첨단분야 등 고품질 훈련을 받는다

-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차 공모 결과 126개 기관 210개 과정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5일(금),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차 선정 결과

이번 1차 선정* 결과, 연간 18,812명을 양성할 수 있는 126개 기관, 210개 훈련 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38,877명에 더해 올해 57,689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규모가 확보되었다.

* 신기술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 ▲기존 훈련기관 및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신규 포함)한 훈련과정을 우선 심사발표 → K-디지털 트레이닝 최초 참여 훈련기관은 4월 말 발표 예정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한화오션(Ocean DX Academy), 현대로템(K-방산 AI 모델 개발과정), 두산로보틱스(지능형 로보틱스 엔지니어 과정) 등의 디지털·첨단기술 선도 기업이 새롭게 선정되어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직접 훈련과정에 반영·설계*한 기업 맞춤형 고숙련 훈련으로써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30% 이상 편성), ▲강의식이 아닌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 훈련과 차별화된 “고급훈련”이라는 현장의 평가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인재양성 사례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23년 직능연)에 따르면, '23~'27년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8대 신기술 분야에서 약 34.5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21년 1.2만명 규모로 운영되던 K-디지털 트레이닝을 디지털·신기술 분야 고숙련 인력양성 사업으로 개편하고, '22년 2.2만명, '23년 3.2만명으로 그 지원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수강한 훈련생들의 실제 성공 사례는 신기술·고숙련 인력양성이라는 사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 ◆ 김○○(29, 남)씨는 대학에서 일본사를 전공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23.3~7월 AI 웹 개발자 과정을 수강하고 대학 전공과 결합하여 일본 내 IT 기업 개발자로 취업하였다.
- ◆ 최○○(25, 남)씨는 '코로나 학번'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 심도있는 학습 경험이 부족했으나 빅데이터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이론·실기와 프로젝트 문제해결 방식을 습득하고 ○○ 손보인프라팀에 입사하였다.
- ◆ '23.7~11월, 빅데이터 스쿨 과정을 수강한 송○○(22, 여)씨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강점으로 “▲ 집중적인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이론의 체계적 학습, ▲ 팀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전공자들과 협업, ▲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의 현실적 조언” 등을 꼽았다.

2024년 “K-디지털 트레이닝”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K-디지털 트레이닝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① 디지털·첨단 분야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훈련 분야를 기존의 디지털 중심에서 첨단과 디지털 융합까지 포함하는 신기술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그동안 첨단분야 훈련과정이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했으나,(470개 중 29개) 이번 공모를 통해 21개 훈련과정(18개 기관)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29개 과정(25개 기관)에 더해 총 50개 과정(40개 기관)을 운영하여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 ▲로봇: +12, ▲반도체: +3, ▲바이오헬스: +2 ▲신재생에너지: +2 ▲에코: +1, ▲이차전지: +1

② 디지털 시대에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필요한 재직자와 사업주까지 훈련대상을 확대하여 최신 기술 습득에 뒤처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재직자 10개 과정(6개 기관), ▲사업주 2개 과정(2개 기관)이 새롭게 추가되어,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고급기술자로 도약 지원) 및 사업주의 신기술(생성형 AI 등) 경영 지원을 위한 새로운 훈련모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③ 기술·환경변화를 신속히 훈련에 반영하면서, 다양한 훈련생의 역량수준을 고려한 개별·맞춤화된 훈련으로 혁신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훈련의 성과는 훈련기관의 역량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의 운영역량을 심사·평가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고성과맞춤형 훈련’ 과정을 신설·공모했고, 9개 혁신훈련기관*이 1차로 선정되었다.

* 구름, 그랩, 멀티캠퍼스, 멧쟁이사자처럼, 모두의연구소, 부스트캠프, 엘리스, 코드잇, 패스트캠퍼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첨단 실무인재 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영역을 현장 수요에 맞게 넓혀나가되, 강점인 프로젝트 훈련의 혁신성과 운영 상의 유연성은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민간 혁신훈련 모델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및 우수 대학 등 혁신적인 역량을 지닌 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1차로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4월 5일 결과발표 이후, 훈련기관의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K-디지털 트레이닝 개요

[붙임2]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훈련 사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윤영귀 (044-202-7307)
		담당자	서기관	최재윤 (044-202-7311)
담당 부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	책임자	센터장	소창환 (02-6943-4051)
		담당자	파트장	권희정 (02-6943-4045)



□ **개 요**

-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 **훈련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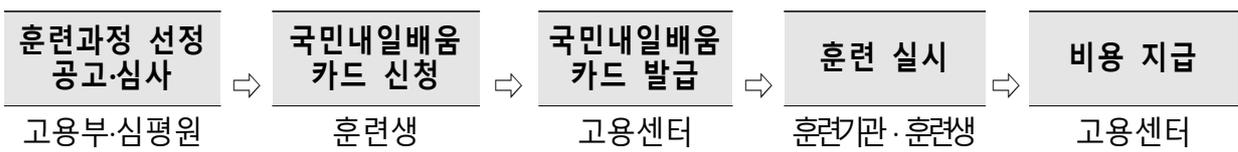
-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하며, 현장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속한 민간 협·단체,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실시

□ **훈련유형**

훈련유형		내용
일반과정(350시간 이상)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협약을 통해 훈련기관과 함께 설계·운영하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
단기과정 (350시간 이하)	심화과정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된 심화과정
	재직자 도약 과정 (‘24년 신설)	프로젝트 100% 훈련을 통해 재직자가 고급·숙련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 (‘24년 신설)	사업주 등 사업 경영자가 신기술(생성형 AI)을 기업 경영 및 관리에 활용하여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 * 재직자·사업주 단기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자라도 실제 재직자 및 사업주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지원)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 추가 지원
 - * 일반과정 월 최대 31.6만원, 단기과정 월 최대 11.6만원 지원
- (지원절차) HRD-Net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지원



사례 1 “코로나로 인한 학습 부진,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역량up! 취up(業)! 달성”

❖ 최OO(25, 남)씨는 실습 경험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취업 시 중요한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였으나, ‘코로나 학번’으로 비대면 수업 중심의 교과 운영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 부족과 프로젝트 경험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1학기 정도의 기간동안 이론과 실습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최씨는 ‘23.1월~7월까지, “[포스코] 청년 AI & Bigdata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하여 파이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개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이론과 실기로 학습하고, 2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해결 역량과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었다. 현장 실무 중심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과정 수료 이후 전공을 살려 OO 손보인프라팀 입사, 근무중이다.

사례 2 “인문학 전공에 개발 역량 UP하여 세계로 진출”

❖ 김OO(29, 남)씨는 대학에서 일본사를 전공하였다. 인문학이 좋아 일본사를 전공으로 선택하였으나, 실제 취업 상황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웹 개발을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독학으로 개발을 학습하는데 한계를 느끼던 차에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알게 되어 ‘23.3월~7월까지, “[팀스파르타] 실무형 AI 웹 개발자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개발과정의 기초가 부족했던 김씨는 해당 과정을 통해 웹 프로그래밍의 기초, 딥러닝/머신러닝에 대한 이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기, 그리고 현장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웹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향상시킨 이후, 대학에서 일본사를 전공하며 습득한 일본어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 개발자로 취업 기회를 탐색하여, 현재는 일본 내 IT 기업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인문학 전공도 살리고, 제2의 전공인 웹 개발 역량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취업 이후 실제 업무 수행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팀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하여 최근 부각되는 자기주도학습과 문제해결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례 3 “아직 늦지 않았다!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다시 시작”

- ❖ 김OO(27, 여)씨는 대학에서 경찰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이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였지만 번번히 낙방하며, 계속 공무원 시험을 볼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탐색할지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였으나 현실을 보니, 대학 졸업 이후 경찰공무원 준비만 해왔던 터라 별다른 특기도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 “[팀스파르타] 실무형 AI 웹 개발자 양성과정”을 '23.3월~7월까지 수강하여 웹 개발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계속 되는 시험의 낙방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김씨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수강하며 인상깊은 성취감을 경험하며 비전공자이지만 실습과 프로젝트 수행, 팀 활동과 훈련기관의 멘토링 등을 통해 웹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과정 수료 후 2주만에 취업에 성공하여 IT 기업 백엔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전공에 연계된 진로만을 생각하며 노력했지만 생각과 달리 길은 다른 곳에도 있었고,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었지만 생각과 달리 본인에게 잘 맞고 재미있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K-디지털 트레이닝이 열어주었다.

사례 4 “단기·집중 과정으로 핵심 실무 인재로 거듭나다”

- ❖ 송OO(22, 여)씨는 통계학과를 전공하였으나, 대학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실무 적응이나 취업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여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 “[㈜LSJ] 빅데이터 스쿨” 4개월 과정(23.7월~11월)에 참여한 송씨는 과정 수료 후 OO에 입사하여 제조 AI스퀘트팀에서 근무중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하여 취업까지 하게 된 송씨가 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강점은 첫째, 집중·단기 과정을 통해 실무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전공자들과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배우며, 다각적인 시각을 갖을 수 있다는 점, 셋째,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채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현실 감각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송씨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현장 실무 중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